



Ⅱ. 부문별 사업실적



한국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경제단체



II. 부문별 사업실적

1. 경제계 대표활동 및 회원교류사업 활성화

1-1. 상공진흥행사 개최

(1) 2006년 신년인사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4일 COEX 그랜드볼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각계 대표와 기업인,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기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며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동반성장을 일구어 올 한해를 선진경제, 선진한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부단한 경영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아울러 깨끗한 경영, 투명한 경영, 함께 나누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확산시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회장은 “정부도 성장의 중요한 축인 설비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경제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불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경제가 이처럼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라며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 경제적으로 좋은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보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정부 각료,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최태원 SK(주)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인사, Michael Geier 주한 독일 대사, Ning Fukui 주한 중국대사 등 외교사절과 Robert E. Fallon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등 주한 외국기업인, 언론 및 사회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 2006년 신년인사회 (1/4)



▲ 제33회상공의날기념식 (3/15)

(2) 제33회 상공의날 기념식

상공인들의 최대 행사로 자리잡은 「상공의 날」기념식을 3월 1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 모범상공인 및 재외동포 상공인, 그리고 수상업체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상공업의 발전에 헌신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현재현 동양시멘트(주) 회

장, 서민석 동일방직(주) 회장이 수상하였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성장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동반성장형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하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최근의 경기회복 기초를 더욱 확실히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과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하며, 한국의 미래를 지켜줄 새로운 기술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 포상인원은 195명으로 정부포상 172명, 경제4단체장 표창 23명이었으며, 모범상공인, 모범관리자 및 사원, 재외 및 교포 상공인, 주한 외국상공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포상이 이루어졌다.

▶ 수상업체

- 금탑산업훈장 : 현재현 동양시멘트(주) 대표이사, 서민석 동일방직(주) 대표이사
- 은탑산업훈장 : 유재성 (주)티시테크 대표이사, 허병하 (주)우신시스템 대표이사
- 동탑산업훈장 : 조현재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정해영 안성유리공업(주) 대표이사
- 철탑산업훈장 : 하성기 에스오일(주) 부사장, 홍성원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 석탑산업훈장 : 성재생 (주)삼테크 대표이사, 함영준 (주)오뚜기 대표이사, 이재원 삼성중공업(주) 상무보

- 산업포장 : 조성환 신성컨트롤(주) 대표이사, 안성호 (주)에이스칩대 대표이사, 박희중 (주)LG전자 그리스 판매법인 법인장, 김광수 우삼(유) 대표, 웨인 철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다카스기 노부야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 대통령 표창 : 전채규 현대안전산업(주) 대표이사, 강동석 (주)세립티티시 대표이사, 박근원 토판포토마스(주) 대표이사, 이상근 삼영물류(주) 대표이사, 김일 (주)아이테크산업 대표이사, 이범호 (주)신우금형 대표이사, 이왕재 알파유통(주) 대표이사, 전승배 삼성테크윈(주) 연구소장, 박병규 현대오일뱅크(주) 상무, 김곤식 금성방재공업(주) 이사, 조정환 (주)삼성전자 세마법인 공장장, 이병헌 (주)효성 타이페이지 사장

(3)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롯데호텔에서 '변화하는 세계, 혁신하는 기업, 도전하는 CEO' 라는 주제로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을 개최하였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최고경영자대학 행사에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하여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초청 연사로 참석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진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외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기업가정신과 윤리경영),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감성시대, 리더의 조건), 이종석 통일부 장관(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한미FTA), 정창영 연세대 총장(한국경제의 미래),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손욱 삼성SDI 상담역(세종시대 기술혁신과 변화리더십),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내몸이 의사다) 등이 연사로 참석하였다.

(4) 제13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11월 24일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 제13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수상기업 임직원 등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 (7/19~7/22)

▲ 제13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11/24)

대통령상인 대상은 대기업부문에서는 대우증권(주),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주)월드테크가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대통령상 수상기업인 대우증권(주) 손복조 사장은 “조직의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불링에서의 헤드핀 공략에서 착안한 ‘Kingpin 전략’,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확장시켜 나가는 ‘Stretching Goal 전략’, ‘Speed 경영’ 등을 실천하였고,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혁신활동에 힘입어 1999년 1조 2천억원의 적자에서 2005년도에 4,104억원의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사례발표에 나선 (주)월드테크는 “CD, DVD 플레이어의 핵심부품인 광픽업(Optical Pick up)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혁신(P), 품질혁신(Q), 기술혁신(T), 정보화혁신(M)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Innovation PQTM’ 운동을 실천하여 광Disk에 기록된 디지털 정보를 재생하는 광픽업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Audio 제품용 광픽업장치와 관련한 세계시장에서 13.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SONY, SANYO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탄탄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수상업체중 혁신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의 CEO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CEO상은 대기업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교육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대교의 송자 회장이,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제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함께 판다는 브랜드 혁신전략으로 성공하여 해외에서 더 유명해진 캐릭터디자인 전문기업인 오로라월드(주)의 홍기우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 수상업체

- 대통령상 : 대우증권(주), (주)월드테크
- 국무총리상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주)대교, 오로라월드(주), (주)금창
- 산업자원부 장관상 : 금호생명보험(주), (주)동우유니온, (주)화승, 기민전자(주), 일립나노텍(주), (주)해인정공
- 최우수 CEO상 : 송자 (주)대교 회장, 홍기우 오로라월드(주) 대표이사

1-2. CEO 네트워킹 활성화

회원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각 분야의 권위있는 명사초빙 등을 통해 상

공회의소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CEO간담회는 지난 한해동안 20여회가 개최되었으며 3,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전근표 국세청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각료 및 국회의원 등을 초빙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영일선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장관 등을 초청하여 한미관계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스테파니 번즈 다우코닝 회장,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 국내외 유명인사들을 연사로 모시고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경영정보를 얻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강연회(3/28)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보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경제회복 노력과 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미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 물류, 법률회계, 컨설팅, 의료, 교육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약하나마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간담회(3/2)에서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질 좋은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허리가 취약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함께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The United and Korea, Partners for a Stronger Future’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12/12)에서 “미국에 비해 3배나 높은 한국의 관세율, 법률서비스·통신·방송 등 미국의 참여가 제한된 시장 분야, 시장진입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쇠고기 등이 한미 FTA의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장벽을 제거해 완전한 시장접근을 얻는다면 미국 의회와 국민은 FTA가 공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CEO 간담회 초청연사



- | | |
|--------------------------|------------------------------|
| ①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2/22) | ⑫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7/27) |
| ②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2/28) | ⑬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8/24) |
| ③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3/2) | ⑭ 스테파니 번즈 다우코닝 회장(9/6) |
| ④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3/8) | ⑮ 전군표 국세청장(9/27) |
| ⑤ 노무현 대통령(3/28) | ⑯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9/29) |
| 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4/20) | ⑰ 이병호 골드만삭스 한국대표(10/24) |
| ⑦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4/26) | ⑱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11/16) |
| ⑧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5/4) | ⑳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11/29) |
| 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5/17) | ㉑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장관(12/12) |
| ⑩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6/14) | |
| ㉒ 이상수 노동부 장관(6/21) | |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난해 우리 경제는 원화강세, 고유가, 북핵문제 등 대외적인 불안요소와 더불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등의 대내적인 악재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한 해였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의 안정, 금융 및 투자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사회일반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2-1. 경제활력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 금융 및 투자여건의 개선, 친기업적 제도 구축, 지역경제 회복 등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시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썼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분야별 건의사업도 전개하였다. 또한 경제전망과 주요 경제이슈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회원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금융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기술력과 사업성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그리고 원/달러, 원/엔화 급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을 정책당국에 요구하였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인 투자 진작을 위해 국회, 정부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투자활성화 방안을 전달하였으며,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투자 저해요인을 조사하고,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투자환경의 선진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점검하고 업

- ▼ 기업투자 활성화방안 세미나(2/9)
- ▼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략회의(9/19)



II. 부문별 사업실적



계차원의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기업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기업정책과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출총관련 애로사항, 출총제 폐지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출총제가 미치는 영향과 폐지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는 등 출총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기업정책 개편과 관련해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 일본식 규제, 사업지주회사 등 주요 대안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출총제 후속대안의 부작용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입법안에서 출총제 후속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순환출자금지방안 등이 제외되었으며, 출총제 적용대상도 일부 축소되는 등 출총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었다.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처분시 제3자 매각금지과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부활의 문제점을 지적해 입법예고안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시켰으며,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시기회남용금지 등 검증되지 않은 기업규제는 철저히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조항과 관련해 과잉규제와 주식회사에 근본원리에 어긋남을 알려 국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관련 애로실태를 조사해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대적 M&A위협, 각종 소송리스크, 환율변동 및 국제원자재 가격불안, 글로벌 경쟁의 격화 등의 주요 경영 리스크를 조사해 기업의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활력저하 실태를 조사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국 가족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별 가족기업 비중과 고용기여도 등을 파악, 가족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별법안이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
▲
▲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8/7)

▲
▲ 상법의 개정방향과 과제 세미나 (10/12)

▲
▲ 기업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6/20)

세계분야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77건의 세계개편 종합과제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R&D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인 법인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정책당국에 요청하였고,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세계전문가, 경제부처 책임자, 기업인 등을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2. 윤리경영 및 기업사랑운동 확산

지난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사기진작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경제4단체와 산업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사랑협의회가 전국 18개 시도에서 활동중이며, 지난해에도 기업가 정신 고양을 통한 친기업 분위기 조성, 기업사랑운동의 정착 및 확산, 경제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전환,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사업목표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였다.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기업사랑협의회 전국 총회' (12/21)에서는 기업 사기진작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지방상의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 모범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기업사랑운동에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氣 살리기 국민 공모전, 기업사랑 홍보대사 임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윤리경영 확산, CEO 봉사활동 활성화 등 기업이미지 개선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총회와 함께 개최된 '지자체 기업사랑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에 대구광역시, 우수상에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라북도, 부산시가 선정되었으며 창원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만화CEO열전을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유일환 회장,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박두병 회장 등 4편이 서비스 중에 있으며 기타 유명 CEO들의 일대기도 제작중에 있다.



▲
▲ 제5회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1/17)

▲
▲ 제1회 기업사랑협의회 전국총회(12/21)

II. 부문별 사업실적



▲ UN 글로벌 컴팩트 국제동향과 우수사례 세미나(11/16)

국내 경제계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과 사업도 함께 전개하였다.

먼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원업체 대표와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고 ▲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 윤리경영 정착 ▲ 사회공헌활동 강화 ▲ 하도급 관계 개선 ▲ 이해관계자의 이익증진 등 경제계 윤리경영 5대 실천과제 및 윤리경영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상공회의

소 회장단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를 통해 윤리경영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명·윤리경영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또한 윤리경영의 확산과 개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윤리경영팀과 윤리경영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였다.

윤리경영팀의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UN 글로벌 컴팩트를 국내기업에 소개하기 위해 UNDP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UN 글로벌 컴팩트 국제동향과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추진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윤리경영 추진실태,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와 과제 등의 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윤리경영의 도입과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윤리경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제공하였다.

2-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개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기업경영상의 애로와 각종 규제를 타개하는데 힘썼다. 지난해 상반기에 총 94건의 개혁과제를 제출하여 34건이 개선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총 120건을 건의하였다.

이와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재정경제부와는 「기업환경개선 현장방문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였다.

6월에는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이 연장되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합규제 개선작업이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연말에는 정부의 복합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2006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사전규제심사에 참여하여 입법추진중인 각종 정책현안에 규제요소가 없는지를 철저히 파악하는 등 경제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65개 상공회의소에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및 콜센터, 종합상담실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활동 중 겪는 다양한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홈페이지(helpbiz.korcham.net)를 통한 기업애로 상담은 물론 각종 정책정보, 경영뉴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였으며 상공회의소 회관에 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난 7월 센터 설립이후 673건의 기업애로 과제를 접수하여, 경영관련 애로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였고, 규제관련 애로는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부처에 이첩하여 개선을 촉구하였다.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현판식(7/10)

● 2006년도 기업애로 접수 건수

구 분	전국상의	대한상의	합 계
경영관련	136건	133건	269건
규제관련	112건	234건	346건
정보제공	7건	51건	58건
합 계	255건	418건	673건

2-4.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업계의견 대변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와 관련하여 노사인력위원회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9월에 대한상공회의소와 노동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고령화와 산업인력수급 정책과제 연구, 산업인력 고령화 대응 실태조사,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와 대졸 근로자들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지향적인 산업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분기별 고용전망지수 조사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상도 전망조사(연 2회)를 실시함으로써 고용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 방향을 전망하였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시 영향 조사,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입장을 대변하였다.

2-5. 한미 FTA체결 지원

지난해 2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FTA 협상 출범 선언 이후 대한상의는 전국 70개 지방상의와 협력하여 민간차원의 효율적인 FTA 대응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타결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협상과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자 FTA 협상동향 및 전망, 지역별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총 54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미 FTA 협상 추진상황 및 지역별 대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8일 국무총리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지역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하고 전국상공회의소가 펼친 그 동안의 활동과 노력을 치하하였다.

이어 12월 15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회장단은 성명서에서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며, 이번 협상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회장단은 또 협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논쟁과 대규모 불법시위가 우리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는 특정산업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정부 역시 피해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반대집단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 국무총리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11/28)

2-6. 부문별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실적

구 분	횟수 / 참석인원						보고/건의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합 계		
조세금융	7회	407명	7회	238명	14회	645명	보고 18회 건의 6건
노사인력	5회	200명	8회	163명	13회	363명	보고 2회 건의 4건
환경안전	11회	270명	4회	60명	15회	330명	보고 6회 건의 20건
유통물류	3회	350명	3회	150명	6회	500명	보고 2회 건의 1건
남북경협	4회	133명	4회	48명	8회	181명	보고 1회
국제	2회	143명	3회	72명	5회	215명	보고 4회
중소기업	7회	377명	-	-	7회	377명	보고 3회
서울경제	4회	394명	-	-	4회	394명	건의 8건
윤리경영	2회	114명	2회	121명	4회	235명	보고 2회
합 계	45회	2,388명	31회	852명	76회	3,240명	보고 38회 건의 39건

(1) 조세금융위원회

기업의 주요 경영환경인 세제, 금융상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본위원회는 경제부처 책임자와 금융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관련 조세개혁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실무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세법건의안 검토회의를 거쳐 깊이있는 세계개편안을 마련·건의하였으며, 건의후에도 재정경제부 세제담당 실무진과의 토론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노사인력위원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과 관련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여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특수형태종사자 보호방안 및 산별노조 확산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동관련 법과 제도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3) 환경안전위원회

환경·안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환경·안전부문의 산업계 대표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위원회 산하기구로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기획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산업계 대책단, 환경규제 및 에너지 테스크포스 등을 운영하여 국내외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한 업계 공동대응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유통물류위원회

유통산업 정책방향, 물류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시아의 물류인프라 구축전략, 유통물류 관련 업계 애로 등을 주제로 이성권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유통물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

물류실무위원회는 제3자물류 활성화방안, 물류관련 법제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창구로 실무위원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가 모여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의견과 이해를 조율하였으며, 유통실무위원회는 업체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체별로 서로 다른 이슈와 전망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5) 남북경협위원회

경제계를 대표하여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와 정책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협의하였고, 새로운 정책을 기업에 알림으로써 기업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북한지역 투자, 북한과의 반출입, 대북 통상정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 해결하였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업계의 현안애로를 논의하고 개성공단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계애로 등을 건의하는 한편, 남북경협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6) 국제위원회

이해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데이브 켄사스 월스트리트 저널 자문·투자부문 편집장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회원기업들에게 통상환경의 변화 및 국내외 주요경제 이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경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김우택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최용진 외교통상부 동남아통상과장, 최형구 Lee International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제조세, 비관세장벽, 지적재산

권 등 국제통상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조명해 보고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7) 중소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광태 고려대 교수, 이준석 산업자원부 FTA팀 서기관 등을 초빙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 환율전망과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경영혁신 전략,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8) 서울경제위원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상공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상공인의 권익향상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당국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이명박 서울특별시시장, 윤중훈 서울지방국세청장, 염재현 서울지방조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을 초청하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업계의견을 개진하였다.

(9) 윤리경영위원회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정착을 통한 기업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친기업정서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창립하였다.

‘UN 글로벌 컴팩트 국제동향과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컴팩트 가입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 위험관리능력 향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정보 교류 및 자문·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기업인과 기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국제협약인 UN 글로벌 컴팩트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 하반기 환율전망과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세미나(7/12)

▲ 윤리경영위원회 창립총회(7/26)

3. 국제협력 활동의 다변화

3-1. 회원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통상지원서비스 제공

(1) 경제사절단 파견

국내 주요기업 CEO 등 기업인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여 중국을 비롯한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두바이, 리비아 등 중동 국가,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선진 국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 등 세계 각국에 총 18회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등의 통상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파트너로서 해당국가와의 통상현안을 파악하여 협상의 제로 제시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관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경제외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2) 통상·투자관련 간담회, 세미나 개최

인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도미니카 대통령,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한일본대사, 주한불가리아대사, 주한벨라루스대사, 주한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에게 해당국의 통상 및 경제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최대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지역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진출 희망기업에게 실무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3) 무역거래 알선 및 상담

전세계 주요지역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입찰 참여, 투자기회 발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한국기업과의 수출입 거래내역과 합작투자 등을 희망하는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해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제입찰정보, 각국 투자환경 및 경제동향을 코참비즈

(www.korchambiz.net)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종합비즈니스가이드북인 'Doing Business with Korea'를 발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국제무역거래시 발생하는 외국기업과의 상사분쟁을 지원키 위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내에 국제중재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적인 무역상담으로까지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2006년 무역거래 알선 및 통상정보 제공 실적

구 분	거래알선	국제입찰정보	기타 통상관련 정보
처리건수	253건	132건	62건

3-2.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1)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몽골 등의 국가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통상현안과 상호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합동회의 개최시 거래/투자상담회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 기업인들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2006년말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41개 국가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세계 최대 민간국제경제기구인 ICC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은행전문위원회에 한국사절단을 파견하여 ICC규약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ICC의 한국 대표기관으로서 ICC가 제정하는 개정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청구보증통일규칙(URDG)의 번역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신용장국제표준은행관행, 신용장분쟁해결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ICC 제규칙에 대한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제8차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7/14)



▲ 한·나이지리아 비즈니스 포럼(3/10)

▲ 인도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2/7)

▲ 중국 청해성 투자설명회(6/26)



▶ ICC 관련 주요회의 참가

- ICC 은행전문위원회 회의 참가 (5/16~5/17, 비엔나)
- ICC 제191차 이사회 참가 및 한-EU Business Roundtable 설립추진 조사단 참가(6/13~6/21, 파리·브뤼셀)
- WCF Steering Committee 회의 참가 (6/14, 파리)
- ICC 은행전문위원회 회의 참가 (10/24~10/5, 파리)
- 제192차 ICC이사회 및 국제세미나 참가 (11/29~12/1, 뉴델리)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4-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1)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담당자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1,832개 업체로부터 병역 지정업체 추천을 받아 974개 업체에 1,648명의 인력을 배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CEO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기업문화·경영혁신 해외연구조사단을 파견하여 하이네켄, 로열 더치 쉘, 에릭슨,



▲ 김흥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초청 조찬간담회(2/28)

웨스트 알피네, BMW, 알리안츠, 바스프 등 유럽의 선진 기업들을 방문하여 선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체험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사업

지난해에는 싱글PPM 품질혁신 소개, 품질인증 방법, 품질관련 각종 기법과 관련하여 On-line, Off-line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다. 총 226회에 걸쳐 연인원 30,029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 교육을 실시하였다.

▲ 대·중소기업 협력포럼(1/13)

▲ 2006년도 기업문화/경영혁신 해외연구조사단 파견 (11/3~11/16)

● 2006년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사업 실적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On-line 교육	26,075명	24,394명	6.9%
Off-line 교육	3,954명	3,112명	27.1%
합 계	30,029명	27,506명	9.2%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수는 221개로 전년대비 74.0% 증가하였으며 품질인증심사는 2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아울러 품질인증 심사와 관련해서는 인증 단계를 세분화하고, 여타 품질인증 획득기업에 대해서는 싱글PPM 인증심사시 중복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수업체 포상을 통한 품질혁신운동의 사기진작 및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개최한 「제12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에는 수상업체 임직원 등 616명이 참가하였으며, 우수업체 10개사 및 유공자 87명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품질혁신의 분위기 확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싱글PPM 홍보물을 제작하여 mbn을 통해 방송(39회)하였으며, mbn과 공동으로 「한국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법무부, 한국전력과 「싱글PPM 품질혁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국 교도소 구외공장(35개) 및 한전 협력기업(4만여개)의 품질혁신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3) 무역증명발급

2006년 무역인증 전체 실적은 695,590건으로 원산지증명발급 등 무역인증은 666,500건, 관세양허원산지증명 21,030건, 서명등록 6,984건, 까르네 1,076건이다. 한편,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인증시스템을 10월에 구축하여 무역업체들이 증명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제12회 싱글PPM 품질혁신전진대회(5/3)

▲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사업 협약식(7/27)

II. 부문별 사업실적

● 2006년 무역관련 증명발급 실적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무역증명	666,500건	695,337건	- 4.2%
관세양허 원산지증명	21,030건	19,552건	7.6%
서명등록	6,984건	6,405건	9.0%
ATA 까르네	1,076건	983건	9.5%
합 계	695,590건	722,277건	- 3.7%

4-2. 상공회 사업의 내실화

2001년 3월 성동구상공회를 시작으로 2003년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설립을 마친 서울상공회의소 구(區)상공회는 출범 6년째인 지난해 외형과 내용면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다.

회원수는 2005년말 35,309개사에서 2006년말 42,007개사로 19% 증가하였으며, 교육횟수는 597회, 연인원 39,816명이 참가하였다. 이를 전년도에 교육횟수 517회, 참가인원 38,457명과 비교해 보면 교육횟수는 15.5%, 수강인원은 3.5%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세무, 회계, 노무, 무역, 법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958건의 경영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청장, 세무서장, 노동사무소장 등 각급기관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 140여

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각 상공회별로 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실시하였는데, 금천구상공회는 한국전력과 현장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회원사에게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였고 송파구상공회, 동작구상공회, 마포구상공회 및 강동구상공회는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홍보 및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관악구상공회를 비롯한 각 구상공회에서는 중소기업인의 권익향상과 경영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제1회 동대문구상공회 CEO아카데미 과정 (10/19~12/7)

● 상공회 사업 실적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횟 수	참석인원	횟 수	참석인원	횟 수	참석인원
교 육	597	39,816	517	38,457	15.5%	3.5%
간담회	537	6,664	362	5,250	48.3%	26.9%
제회의	312	9,288	219	6,582	42.5%	41.1%

5. 온라인 정보제공 및 정보화 지원 활성화

5-1. 코참비즈 DB 및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코참비즈(www.KorChamBiz.net)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던 3만개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원간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 멘토 서비스도 새로이 개발하였다.

2006년 말 현재 코참비즈는 기업정보 317,000개, 상품정보 1,606,000개, 거래정보 546,000개 등 다양하고 방대한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의 코참비즈 이용자수는 2005년 말 170,137명 대비 44,813명 증가한 214,950명이고 코참비즈의 프리미엄서비스 이용기업은 전년대비 687개 증가한 1,956개이다.



▲ 코참비즈 홈페이지

5-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서비스 강화

(1) IT화콜센터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IT화콜센터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해주는 종합 IT A/S 지원센터로서 기업의 경영정보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화콜센터에서는 '1600-1747' 전용선을 통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문 컨설턴트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원격지원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아울러, 'it114.or.kr' 홈페이지를 통한 IT분야별 온라인 상담과 IT솔루션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인

II. 부문별 사업실적

A/S를 지원하는 현장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대학생(교수 포함)과 전문컨설턴트로 구성된 IT산학지원단을 파견, 컨설팅을 하는 IT산학협력 지원 사업과 경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보화 경영을 자문해주는 CEO IT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업그레이드된 IT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 2006년도 IT화콜센터 사업실적

사업 구분	지원기업 수	지원 횟수
콜 상담	4,420개	5,043회
현장 진단	185개	185회
현장 지원	373개	1,029회
IT 재교육 및 세미나	506개	849회
CEO IT 경영자문	7개	63회
산학 지원	39개	801회
IT 전문인력 양성	전국 6개 지역 9개 대학 260명 컨설턴트 양성	

(2) SCM 사내전문가 양성 및 진단컨설팅 사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SCM 사내전문가 양성교육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SCM고급전문가 양성교육 및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SCM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시행하였다. 2006년도 SCM사내전문가 양성교육은 대한전선 등 171개 회원사의 실무책임자 233명이 수료하였으며, SCM고급전문가 양



▲ SCM 사내전문가 양성교육(12/14)

성교육은 교학사 등 18개 회원사의 관리자 23명이 참여하였으며, SCM컨설턴트 양성교육은 3개 대학에서 개최하여 84명이 수료하였다.

아울러 SCM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SCM 도입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2006년도 SCM 진단 컨설팅 사업은 태광실업 등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 자격검정사업의 지속적 개선

6-1. 자격검정 시행

● 2006년도 검정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국가기술자격	2,622,383	2,800,007	- 6.3%
국가자격	66,809	55,193	21.0%
국가공인자격	21,390	20,224	5.7%
상의자격	13,901	33,690	- 58.7%
합 계	2,724,483	2,901,114	- 6.0%

검정사업은 총 70개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종목 수는 국가기술자격 7개, 국가자격 1개, 국가공인자격 15개, 상의자격 9개 등 총 32개 종목이다.

지난해 전체 수험자 수는 2,724,483명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다. 법무부 재소자 및 도서벽지(백령도, 울릉도),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자 등을 위하여 수시검정도 14회 시행, 14,459명이 응시하였다.

한편, 수험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설검정 시행상의를 총 28개 상으로 확대·시행하였으며, 상설검정 수험인원은 1,111,813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하였다.



▲ 상의회관 상설검정장 오픈(1/5)

● 연도별 상설검정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험인원	164,575명	279,991명	438,355명	812,687명	1,111,813
시행상의	7개	11개	15개	21개	28개

6-2. 검정제도 및 환경 개선

(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검정시스템 개선

효과적인 수험자 민원처리를 위하여 6월부터 콜센터를 개소하여 전화 민원의 99.8% 를 처리 하였다. 또한 통합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환불제를 도입하여 수험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지금까지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인터넷 환불제를 시행으로 환불요청자의 98%가 인터넷 환불을 신청하였다.

(2) 자격검정 가치 제고 및 신규종목 개발

상의 자격검정인 FLEX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국가공인자격을 신청하여 FLEX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여 상공회의소 검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회원 기업의 인력채용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직업능력평가시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시험은 정보화, 외국어, 경영일반, 인적성검사, 기타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직원의 기초차질 평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인력개발사업의 내실화

7-1.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인력 양성·공급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부산 등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은 지난 한해동안 양성훈련 3,778명,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12,256명, 이력닝훈련 2,470명, 기타 직무능력향상훈련 2,327명 등 총 20,831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매년 훈련자원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홍보방법 다양화 및 수시모집 등을 통하여 응시율이 전년도 대비 32%p 증가(183%→215%)하였으며, 모집계획 인원대비 100%의 모집실적을 달성하였다.

대한상의 직업교육훈련은 유사 훈련기관과 차별화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훈련생 밀착지도 등을 실시하여 2006년도 훈련생 중도탈락률을 전년대비 1.8%p 낮은 8.0%까지 감소시켰다.

2006년 2월 정부위탁 양성훈련 수료자의 수료후 3개월시점의 취업인원은 1,581명으로 군입대를 제외한 취업대상인원 1,787명 중 진학, 자영업자 등을 제외시 88.5%가 순 취업하였으며, 수

료자중 87.4%에 해당하는 1,670명이 전산응용가공, 자동화설비제어사, 전기계측제어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 훈련실적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인원 (명)	비율
합 계	20,831명	17,168명	3,663명	21.3%
양성훈련	3,778명	3,757명	21명	0.6%
기타훈련	17,053명	13,411명	3,642명	27.2%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4개 인력개발원에서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을 실시하였다.

참여 기업수는 4,061개 업체, 훈련인원은 목표인원 6,720명 대비 182%인 12,256명으로 전년 대비 622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맞춤형훈련 등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훈련센터 운영 및 경기인력개발원의 신규 참여 등에 기인한 것이다.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실적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인원 / 기업수	비율
계획 인원	6,720명	5,600명	1,120명	20.0%
참여기업수	4,061개	3,585개	476개	13.3%
훈련 인원	12,256명	11,634명	622명	5.3%

II. 부문별 사업실적



▲ 이러닝훈련사업 협약식(5/30)

훈련의 편의성 제고와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훈련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닝훈련은 데이콤 등 전문기술 보유업체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이 산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주 위탁과정 68개, 일반과정 10개, 자율학습 무료교육과정 78개 등을 운영, 총 2,470명이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

● 이러닝훈련사업 실적

구 분	과정수	개설횟수	수강인원	비 고
사업주위탁	68개	2개	993명	2006년 9월 훈련개시
일 반	10개	2개	12명	
자율학습(무료)	78개	4개	1,465명	

7-2. 훈련인프라 확충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지역별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장형 하드웨어, 건축시공 등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훈련직종 개편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연수 238명, 기업체 현장연수 50명, 해외연수 77명 등 총 365명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훈련생의 학습이해 증진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산업현장중심의 매체개발/종합과제 48점, 실물모형/모델 24점 등을 개발,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2006년 전국 교보재 경진대회에서 부산인력개발원이 출품한 '동영상을 이용한 CNC 공작기계 프로그램과 가공'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상의 직업교육훈련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7-3.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사업 추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다년간 체득한 직업훈련 노하우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훈련기법 개발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대한상의의 우수한 기술인력 개발경험과 훈련 노하우 전수를 위해 개발도상국 교사 및 직업훈

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6개 과정에 11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이란, 가나 등 6개국에 직업훈련 전문가 7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대한상의가 지닌 직업훈련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또한 알제리 및 우즈베크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등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훈련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보급, 연수생 초청 연수, 현지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25명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을 요코하마, 가와사키 상의 관내 13개 기업체에 파견하여 6개월간 신진기술자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 개발도상국 외국인 초청연수(11/9)

▲ RFID 컨퍼런스 및 전시회(4/25)

▲ RFID리더스 그룹 제1차 회의(4/27)

8. 유통물류사업의 확대 발전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1991년 대한상공회의소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국제표준상품코드(바코드)를 보급하여 왔고 현재 차세대 바코드인 RFID/EPC 산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전자카탈로그 사업 등 유통물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1. RFID/EPC 관련사업

진흥원은 국제표준인 EPC 보급·확산을 위한 국내 책임기관으로 지난해에는 의류·의약품·환적 수출입물류 등 3개분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RFID 리더스그룹 및 업종별 실무포럼을 구성하여 산업계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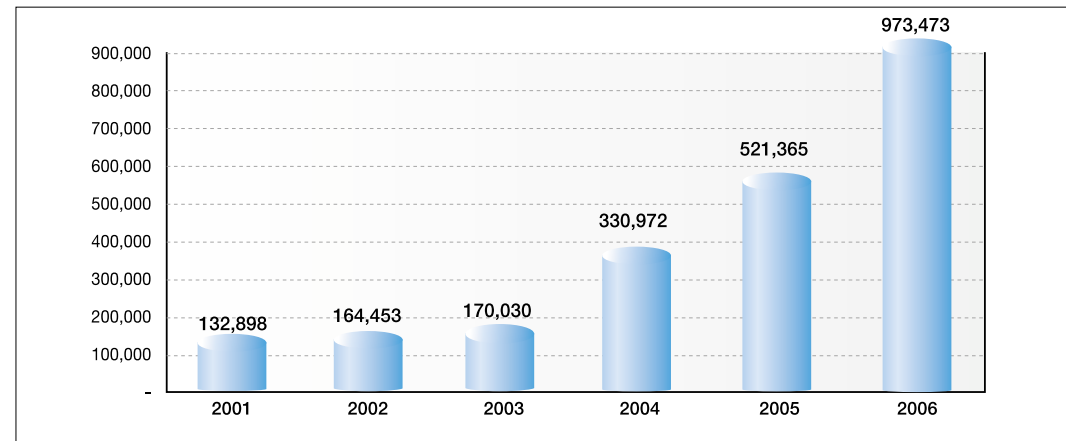
8-2. 전자상거래사업

전자카탈로그 '코리아넷' 사업은 제조업체가 상품 및 업체정보를 한번 입력하여 모든 유통업체들이 관련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통시스템 고도화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코리아넷'에는 현재 97만개의 신상품이 등록되어 국내최대의

II. 부문별 사업실적

전자카탈로그DB로 자리매김하였고, 삼성테스코와 실시간 동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하였다. 9월부터는 국가간 상품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간 데이터동기화네트워크(GDSN)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연도별 코리안넷 상품등록 추이



구분	의류	일용품	식품	문화용품	내구소비재	기타	합계
상품수(건)	424,106	217,164	194,615	88,582	42,981	6,025	973,473

8-3. 유통물류 정책자금 지원 및 정보제공사업

물류정보의 하부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물류비 계산지침을 개정하고, 물류비용조사,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유통물류자동화, 정보화 시설 등에 용자를 지원하는 유통물류합리화 정책자금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국내외 시장동향, 각종 연구자료, 유통통계 및 관련법규 등 국내외 유통산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통정보 DB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하였다.(www.retaildb.or.kr)

그리고 유통업체로부터 판매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동향,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분석정보를 생성하여 제조·유통 및 관련업계에 제공하는 POS데이터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다.

9.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대한상회가 2005년 5월 설립한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선진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1.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국내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항소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스위스 호프만 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의 건설을 둘러싼 통영시와 환경시민단체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다. 환경훼손 비용은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약 14%인 9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업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이 외에도 글로벌 500대 기업의 환경·사회부문 커뮤니케이션 현황분석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연계방안, 중소기업 환경경쟁력 강화방안,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갈등 조사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



9-2.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날로 높아지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경영원과 HSBC가 공동기획한 민간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컨설팅업체로부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등 주요 환경부문 실태를 진단받았고,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1:1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행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부응하여 지속가능경영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세계적인 지속가능성평가기관인 스위스의 SAM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과정으로 포스코, 현대자동차, KT등 13개 회원사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환경경영 지원사업 (6/10)

▲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워크숍(11/27)